

외교부 : 펜타닐은 미국의 문제이다

11월 26일,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의 마약 금지 관련 주장에 대해 기자의 질문에 답변했다. 한 기자가 "미국 대통령 당선인 트럼프는 소셜미디어(社交媒体)에서 펜타닐(芬太尼) 등 마약 문제에 대해 중국측과 협상했지만 진전이 없다면서 대량의 마약이 미국으로 류입될 것이기 때문에 미국측은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이에 대한 중국측의 반응을 요청했다. 대변인은 "중국은 세계에서 마약 금지 정책이 가장 엄격하고 가장 철저하게 집행하는 국가 중 하나"라면서 "펜타닐은 미국의 문제이다.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중국은 미국의 펜

타닐 문제를 지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2019년 펜타닐류 물질 전체를 공식적으로 규제 목록에 포함시킨다고 발표했는바 세계 최초로 펜타닐류 물질 전체를 공식적으로 규제 목록에 포함시킨 나라"라며 "중국은 미국과 광범위하고 심도있는 마약 금지 협력을 펼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는 세상이 다 아는 바"라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또 "중국은 평등호혜, 상호 존중의 기초 위에 미국과 마약 금지 협력을 계속할 용의가 있다."며 "미국은 중국의 선의를 소중히 여기고 중미 마약 금지 협력에서 어렵사리 맺은 양호한 국면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신화넷

G7, 자신의 일 잘 관리하길

외교부 대변인 모병은 11월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주요 7개국(G7) 외교부장회의 공동성명의 중국 관련 내용에 대해 G7이 지정학적 게임에 빠지는 것을 그만두고 편협한 제로섬(零和) 사고를 버리며 국제사회의 단결과 협력이 확실하게 기여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모병은 "올 들어 중국은 G7의 중국 관련 잘못된 발언에 대해 여러차례 엄정한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G7이 중국과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 구축을 모색해 글로벌 도전 대응에 협력하겠다

고 밝힌 만큼 중국을 공격하고 먹칠할 것이 아니라 상호 존중, 평등호혜의 정신을 실천하고 실제 행동으로 상술한 입장 표명을 리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동해·남해·대만·신강·서장·항항 등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며 G7이 중국의 주권을 훼손하고 내정을 간섭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하며 G7이 유엔헌장의 취지와 원칙 및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준수하고 자신의 일을 잘 관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신화넷

제 11 진 재한 중국인민지원군 련사 유해 귀국



11월 28일, 심양 도선국제공항에서 의장병들이 지원군 련사의 유해를 호송하고 있다. / 신화넷

외국군인사무부에 따르면 제 11 진 재한 중국인민지원군 련사 유해가 11월 28일 점심 운-20 전 용기편으로 심양 도선국제공항에 운송, 송환되었다. 중국과 한국은 11월 28일 오전 한국 인천 련사유해팀시안치소에서 제 11 진 재한 중국인민지원군 련사 유해 입관식을 공동 진행했다. 한국은 지원군 련사 유해를 입

관하고 재한 중국인민지원군 련사 유해 43 구와 유품 495 점을 중국 측에 인도했다. 중국은 2014년부터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솔직하고 우호적이며 실무적으로 협력해 11년 련속 981 구의 재한 지원군 련사 유해 및 관련 유품을 인도했다. / 신화넷

미국, 이른바 신강법안 관련 중국 기업 29 곳 제재

상무부 : 사실근거 없어, 단호히 반대



2023년 11월 6일, 신강 타쉬콜간 따쉬기까지치현에 위치한 카라수통상구. (항공 사진) / 신화넷

미국이 최근 29개 중국 기업을 <위글(维吾尔) 강제노동 예방법>에 따른 수입 제재 명단에 포함시켰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중국정부가 강력 반격했다. 11월 26일,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의 관행은 사실근거가 없으며 '인권'을 내세워 횡포를 부리는 것으로 전형적인 경제적 강압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측은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단호히 반대하며 미국측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며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의 수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은 강제노동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신강에는 '강제노동'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측은 확실한 증거 없이 중국 기업이 신강에서 자재를 구매하거나 신강 출신 직원을 모집하는 것만으로 제재를 가한다며 규탄했다. 이는 신강지역 주민의 기본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관련 기업의 정당한 권익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과 안전을 파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정치 조작과 편파 행위를 즉각 멈추고 중국 기업에 대한 무리한 탄압을 중단할 것을 미국 측에 강력히 촉구했다. / 신화넷

미국이 최근 29개 중국 기업을 <위글(维吾尔) 강제노동 예방법>에 따른 수입 제재 명단에 포함시켰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중국정부가 강력 반격했다. 11월 26일,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의 관행은 사실근거가 없으며 '인권'을 내세워 횡포를 부리는 것으로 전형적인 경제적 강압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측은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단호히 반대하며 미국측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며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의 수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판 대외개방통상구 출입경변방검사

현장표식 12월 1일부터 사용

국가이민관리국은 11월 27일 공고를 발표하여 2024년 12월 1일부터 전국 수상 운수, 항공, 철도, 도로 총 311개 통상구에서 신판 대외개방통상구 출입경변방검사 현장표식을 사용한다고 전했다. 신판 대외개방통상구 출입경변방검사 현장표식은 주표식과 기능표식 두가지로 나뉜다. 주표식은 대외개방통상구에서 출입경변방검사기관을 나타내는 표식이고 중국이민관리표식과 '중국

인관리' 중영 문자로 함께 구성되었다. 그중 중국이민관리표식은 이미 2021년 4월 2일에 사용되기 시작했다. 기능표식은 대외개방통상구에서 출입경변방검사 현장의 관련 통로 시설과 안내 방향을 나타내는 표식으로서 6가지 종류, 70개로 세분화되며 구체적으로 16개 통로 표식, 6개 공공구역표식, 21개 사업 장소와 시설 표식, 9개 안내표식, 9개 당부표식, 9개 방향표식이 포함된다. / 인민넷 - 조문판

서울 소비자, 중국 직구 3일 안에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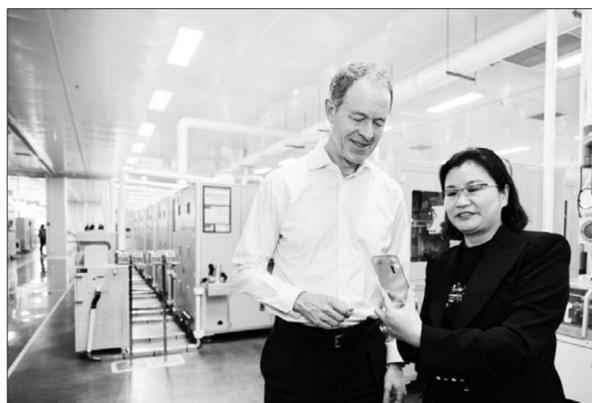
"한국 소비자가 오전 9시전에 주문을 하면 우리는 바로 제품 선택과 포장에 들어간다. 당일 오후 4시면 선적돼 한국으로 보내져 빠르면 3일 안에 소비자에게 배송된다." 산둥 위해종합보세구에 위치한 알리익스프레스(速卖通) 창고에서 한 직원이 분류 및 포장한 크로스보더(跨境) 전자상거래 소포를 항공로 향하는 화물트럭에 실으며 말했다. 이처럼 3일 안에 한국으로 배송될 수 있었던 것은 강화된 디지털·지능화 역량 덕분이다. 최근 수년간 위해종합보세구는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산업의 디지털·지능화 개조를 적극 추진하고 창고 보관·물류·통관 등 단계에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도입했다. 기업의 수급(供需) 매칭(对接) 강화, 원가 구조 최적화, 해외시장 확대를 촉진했다는 평가이다. "올해 중국 쇼핑축제인 '쌍 11'(11월 11일) 기간 재고량, 주문량, 상품 품목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 위해홍신공급사슬관리회사 차이나오(菜鸟) 프로젝트부 경리 장국동은 올해 '쌍 11' 기간 알리익스프레스 플랫폼의 하루 평균 주문량이 두배로 증가했으며 출고량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홍신공급사슬관리회사 종합관리부 경리 왕해문은 위해종합보세구의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종합서비스 플랫폼 덕분에 크로스보더 전자상

거래 관련 서류의 '초고속 통관'이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낮은 서류 작성 효율, 많은 오류, 느린 정보 처리 속도 등 문제를 피할 수 있어 통관 효율이 크게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위해종합보세구상무국 부국장 리호는 기업이 해당 플랫폼에 접속하면 플랫폼은 자동으로 기업의 주문 정보를 식별한다. 그다음 주문서·송장(运单)·리스트(清单)를 표준 데이터 메시지(标准报文)로 조합해 해관에 전달한다. 통관 승인 회신 문서를 수령한 후 정보 승인 회신 문서를 창고에 전달하고 통관 정보를 한국 통관회사에 발송하면 한국 통관회사가 즉시 한국 해관에 이를 신고한다. 소포는 통관 절차가 완료된 당일 바

로 한국으로 발송돼 3일이면 서울에 거주하는 소비자에게 도착한다. 해당 플랫폼은 300여개 업체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통관 주문량이 고봉일 때는 하루 17만~18만건에 이른다. 위해종합보세구에 자리한 차이나오 화북운점센터 창고 안에서 한 직원이 길게 늘어진 피킹 리스트(拣货单)를 들고 선반에서 물건을 찾고 있다. 직원은 창고 보관 시스템이 설정한 최적의 경로에 따라 움직인다. "우리는 대옥(大宝) 창고 보관 관리 시스템, 신경(神鲸) 시스템을 도입해 주문한 상품의 분포 위치에 따라 피킹 동선을 계산하고 있다. 덕분에 피킹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운철공급사슬 관련 담당자 퉁효군은 "출하 시 탑 스캐너(顶扫设备)가 자동으로 택배의 부피·무게·주문 정보를 식별한 후 이를 플랫폼, 택배회사, 중앙창고 시스템에 전달하면 제3자가 자동으로 정보를 대조 확인해 주문 내용이 정확한지 판별한다."면서 이로 인해 "인건비를 크게 줄였다."고 밝혔다.

애플 최고경영자: 중국,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공급사슬



사진은 애플회사와 18년 동안 협력을 지속해온 람사과학기술그룹의 호남성 장사에 위치한 공장 내부 모습이다. (10월 23일 찍음) / 신화넷

애플 최고경영자 팀 측은 올해 세번째로 중국 본토를 방문하며 중국 공급업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26일부터 30일까지 북경에서 열리고 있는 제 2회 중국국제공급사슬 엑스포 기간 측은 "파트너들과 함께 이곳에서 전시회를 열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파트너 없이는 우리가 하는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엑스포 메인 행사장에 자리한 애플의 중국 공급업체 4곳의 공동 전시 부스를 방문했다. 해당 업체들은 유연 생산라인, 록색기술, 광학 제품과 관련된 부품과 기술을 선보였다. 애플의 전세계 200개 주요 공급업체 중 80% 이상이 중국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 본토 최대의 애플스토어 오픈을 맞아 3월 상해를 방문했던 쿡은 중국 시장에 대한 애플의 장기적 계획을 거듭 강조했다.

"세계에서 중국보다 더 중요한 공급사슬은 없다." 쿡은 중국 공급사슬 파트너와 장기 협력을 강화하고 록색·스마트 제조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여 서로 보완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10월 북경 방문 기간 공급사슬, 연구개발 등 분야에서 대 중국 투자를 이어가겠다고도 약속했다. 중국국제공급사슬엑스포는 공급사슬을 주제로 한 세계 최초의 국가급 엑스포이다. 전세계 업계 리더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번 행사는 산업·공급사슬 글로벌 협력 촉진을 목적으로 했다. 올해 중국국제공급사슬엑스포에는 세계 60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했는데 해외 참가 업체가 전체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며 그중 미국 기업 비중이 가장 크다. / 신화넷



쿠팡 창고 밖에서 적재되고 있는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포 / 사진 취재원